

졸업학년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

함연숙¹⁾ · 김화순²⁾ · 조인숙³⁾ · 임지영⁴⁾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의 기본적인 가치는 인간 생명, 권리 및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므로 간호학은 다른 학문보다 더 확고한 직업윤리와 가치관 정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이경혜, 1985).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에 대한 올바른 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사들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에 대한 직업의식적인 견해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통해 개인적 만족은 물론, 대중들로부터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Adams & Miller, 2001).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되기 시작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고(김영란, 1995) 이후 실무 경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한다(김소선 등, 2004; Schank & Weis,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임상실습에서 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서원희, 2007; 양진주, 2000). 하지만 최근 임상경험이 부족한 학생으로부터 간호 받기를 거절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실습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임상실습 현장에서 어려움은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실습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며 자신

감 상실을 유도하여 간호전문직에 대한 회의마저 느끼게 할 수도 있다(황성자, 2006).

급변하는 임상실습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을 촉진하고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이다(오원옥, 2002). 자기효능감은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시에 맡은바 역할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학생의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신은주, 2008; 오원옥, 2002).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간호학과 학생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엄격한 교과과정, 과중한 학습량, 국가고시, 강의실 수업이외에도 조직체계가 다른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실습을 수행해야 하는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배정미, 1999). 뿐만 아니라, 엄중한 행동 규범, 환자에 대한 책임감, 미래 간호사로서 직업관과 가치관 확립과 같은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이 인지하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 역시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호학생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결자와 강현숙(1984)에 따르면 교육과정 중에 경험하는 임상실습에서 불만족은 학생의 자존감에 손상을 주어 결과적으로는 간호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간호전문직에 대한 정체감을 위협한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학생이

주요어 : 간호, 학생, 간호전문직관

* 이 논문은 제1저자인 함연숙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였음.

1. 안산대학 시간강사

2.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khs0618@inha.ac.kr)

3.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4.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투고일: 2011년 4월 21일 심사완료일: 2011년 7월 29일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3일

간호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간호사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Kelly, 1980).

지금까지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실무 경험을 한 간호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문직자아개념,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간호가치관, 전문직사회화, 자기효능감 및 임상수행능력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해 한 두 변수들 사이에 관계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강현옥, 2009; 김영희, 2007; 서원희, 2007; 양진주, 2000; 조결자, 강현숙, 1984).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연구는 간호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서 차이(김영란, 1995)에 대한 연구와 4년제 학제의 2학년과 4학년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을 비교 조사한 연구(Bang et al., 2011)가 있었을 뿐이었다. 한국에서 4년의 정규 학업 과정을 거의 끝마친 졸업학년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및 전공만족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변수가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졸업시점에 학생들이 갖는 간호전문직관은 이후 간호사가 되어서 간호전문직관의 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졸업시점에서 간호전문직관의 형성 정도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교육을 통해 4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확인하고 선행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과 관련 요인으로 나타난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및 전공만족도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요인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4년제 대학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교육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확인한다.
-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다.
-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다.

-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졸업을 앞둔 4학년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와 영향 요인들을 규명하여 학생들의 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자는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참여를 서면 동의한 간호학생으로 I 시 소재 2개 대학교와 S 시 소재 1개 4년제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4년간의 임상실습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 207명이었다.

3. 연구도구

●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2005)가 개발한 29문항을 한상숙, 김명희 및 윤은경(2008)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문항을 축소 한 총 18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측정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상숙 등(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이었다.

●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과목,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및 실습평가 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결자와 강현숙(1984)이 개발한 임상실습만족도 도구와 이성은(2001)이 개발한 임상실습만족도 도구를 이순희, 김숙영과 김정아(2004)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 3문항,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 6문항,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 9문항,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 7문항,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 3문항,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 3문항의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순희 등(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다.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나 인적자원, 일련의 활동을 하게 하는 즉,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포괄적인 판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제작하고 홍혜영(1995)이 번역한 도구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13개의 역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혜영(199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5이었다.

● 간호사이미지

간호사이미지는 대상자가 간호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념, 사고 및 인상의 집합체이며 태도를 형성하는 한 요소로서 간호사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가리킨다(Kotler & Clarke, 1987). 본 연구에서는 양일심(1998)이 개발하고 이순희 등(200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전통적 이미지 12문항, 사회적 이미지 6문항, 전문적 이미지 6문항, 개인적 이미지 3문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순희 등(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이었다.

●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다(하혜숙, 2000).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리노이(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하혜숙(2000)이 제작한 34문항으로 구성된 학과만족 도구를 이동재(2004)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동재(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2010년 11월 3일까지 24일간으로 자료 수집은 각 대학을 미리 방문하여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받은 후 4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다 마친 후에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강의실에서 질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배부한 239부의 설문지 중 213부가 수거되어 89.0%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에서 무응답 문항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20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Win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s test를 하였다.
-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은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207명 중 성별은 남자 3.4%(7명), 여자 96.6%(200명)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3-24세가 75.8%(157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22.7세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타 41.5%(86명), 기독교 29.0%(60명), 천주교 22.2%(46명), 불

교 7.2%(15명)순이고, 기타는 무교 40.1%(83)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외의 종교 1.4%(3)가 포함되었다. 학업성적은 평균 3.0 - 3.9가 83.1%(172명)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 35.8%(73명),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28.0% (58명),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23.7%(49명), 고교성적을 고려해서 12.1%(25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7)

Characteristics	Items	n	%
Sex	Male	7	3.4
	Female	200	96.6
Age(years)	21 - 22	31	15.0
	23 - 24	157	75.8
	≥ 25	19	9.2
Religion	Christian	60	29.0
	Catholic	46	22.2
	Buddhist	15	7.3
	Other	86	41.5
Grade point average score	2.0 - 2.9	16	7.7
	3.0 - 3.9	172	83.1
	≥ 4.0	19	9.2
Motivation for nursing	Score of high school	25	12.0
	Fitness	49	23.7
	High employment	73	35.3
	Recommendation	58	28.0
	Other	2	1.0

2.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및 전공만족도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은 3.43(±0.47)이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간호의 독자성 4.30(±0.69), 간호계의 역할 3.80(±0.65), 전문적 자아개념 3.66(±0.65), 간호의 전문성 3.12(±0.37), 사회적 인식 2.85(±0.71)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은 3.28(±0.48)이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실습교과 3.68(±0.69), 실습환경 3.54(±0.57), 실습평가 3.35(±0.86), 실습지도 3.27(±0.61), 실습시간 3.21(±0.86), 실습내용 2.79(±0.57)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은 3.60(±0.42)이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3.62(±0.45), 사회적 자기효능감 3.52(±0.60)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이미지는 5점 만점에 평균은 3.71(±0.53)이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전문적 이미지 3.92(±0.62), 전통적 이미지 3.77(±0.58), 사회적 이미지 3.49(±0.64), 개인적 이미지 3.44(±0.74)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은 3.88(±0.58)이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인식만족 4.18(±0.65), 일반만족 3.90(±0.68), 관계만족 3.56(±0.88), 교과만족 3.55(±0.87)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Image of nurses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N=207)

Variables	Mean	SD	Range of scores	
			Min	Max
Nursing professionalism	3.43	0.47	2.22	4.78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66	0.65	1.50	5.00
Social awareness	2.85	0.71	1.20	5.00
Professionalism of nursing	3.12	0.37	2.33	4.00
Roles of nursing service	3.80	0.72	1.50	5.00
Originality of nursing	4.30	0.69	1.00	5.0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3.28	0.48	1.90	4.81
Practice curriculum	3.68	0.69	1.67	5.00
Practice content	2.79	0.57	1.17	4.67
Practice teaching	3.27	0.61	1.11	5.00
Practice environment	3.54	0.57	1.57	5.00
Practice time	3.21	0.86	1.00	5.00
Practice evaluation	3.35	0.86	1.00	5.00
Self-efficacy	3.60	0.42	2.48	4.74
General self-efficacy	3.62	0.45	2.24	4.82
Social self-efficacy	3.52	0.60	1.50	4.83
Image of nurses	3.71	0.53	2.33	5.00
Traditional image	3.78	0.58	2.08	5.00
Social image	3.49	0.64	1.83	5.00
Professional image	3.92	0.62	1.83	5.00
Individual image	3.44	0.74	1.67	5.00
Major satisfaction	3.88	0.58	1.94	5.00
General satisfaction	3.90	0.68	2.00	5.00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4.18	0.65	2.00	5.00
Curriculum satisfaction	3.55	0.87	1.33	5.00
Relationship satisfaction	3.56	0.88	1.00	5.0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차이는 종교 (F=6.90,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able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차이는 종교(F=2.88, p=.037)와 학업 성적(F=6.14, p=.00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4.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및 전공만족도 간의 관련성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및 전공만족도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3>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7)

Characteristics	Items	Nursing professionalism			
		Mean(SD)	t or F	p	Scheffe' test
Sex	Male	61.86(6.01)	1.32	.253	
	Female	61.75(8.61)			
Age(years)	21 - 22	63.42(8.34)	0.79	.457	
	23 - 24	61.55(8.49)			
	≥ 25	60.68(8.52)			
Religion	Christian ^a	64.93(7.75)	6.90	<.001	a>b, d
	Catholic ^b	58.78(8.67)			
	Buddhist ^c	65.60(11.98)			
	Other ^d	60.44(7.38)			
Grade point average score	2.0 - 2.9	58.56(8.45)	1.41	.247	
	3.0 - 3.9	61.89(8.25)			
	≥ 4.0	63.16(10.68)			
Motivation for nursing	Score of high school	61.92(9.58)	1.42	.227	
	Fitness	63.88(9.22)			
	High employment	61.22(7.71)			
	Recommendation	60.36(8.30)			
	Other	67.00(7.07)			

<Table 4>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7)

Characteristics	Item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Mean(SD)	t or F	p
Sex	Male	101.86(14.72)	0.01	.926
	Female	101.71(14.86)		
Age(years)	21 - 22	103.87(12.82)	1.20	.304
	23 - 24	100.84(14.62)		
	≥ 25	105.42(18.93)		
Religion	Christian	104.43(15.64)	2.88	.037
	Catholic	98.87(12.45)		
	Buddhist	109.00(19.79)		
	Other	100.07(13.95)		
Grade point average score	2.0 - 2.9	89.56(10.03)	6.14	.003
	3.0 - 3.9	102.66(14.41)		
	≥ 4.0	103.37(17.77)		
Motivation for nursing	Score of high school	102.08(14.78)	1.34	.257
	Fitness	104.82(14.95)		
	High employment	98.79(14.99)		
	Recommendation	102.71(14.48)		
	Other	99.00(2.83)		

<Table 5>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07)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585 (<.001)			
Self-efficacy	.252 (<.001)	.196 (.005)		
Image of nurses	.729 (<.001)	.601 (<.001)	.382 (<.001)	
Major satisfaction	.657 (<.001)	.586 (<.001)	.403 (<.001)	.630 (<.001)

5.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 요인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종교와 임상실습만족도 그리고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종교변수의 경우 기타 범주에 포함된 대상자 중에서 천주교, 기독교 및 불교이외의 다른 종교로 응답한 대상자 3명은 최종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제외하고 3개의 종교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총 20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6>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N=204)

Variables	B	S.E	β	t	p	Adj R ²	F
Image of nurses	.27	.04	.46	7.59	<.001	.520	77.59 (<.001)
Major satisfaction	.23	.05	.28	4.63	<.001	.58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08	.03	.13	2.23	.027	.594	
Religion (Catholic)	-2.28	.91	-.11	-2.53	.012	.601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독립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는 .196 - .729로 나타났으며 .80 이상인 설명변수는 없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53 - .99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01 - 1.89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현, 정영해, 김진선, 송라운, 황구윤, 2002).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호사이미지, 카톨릭, 임상실습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영향요인은 간호사이미지가 52.0%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전공만족도, 종교, 임상실습만족도를 포함한 변수가 간호전문직관 변량의 총 60.1% 설명하였다(Table 6).

논 의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교육을 통해 형성된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 3.4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Bang 등 (2011)의 연구에서 2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평균 점수인 3.43(±.42)과 동일하였고 3년제 1,2,3학년을 대상으로 한 권영미와 윤은자(2007)의 연구에서 평균 3.60점보다는 낮았다. 이는 학제의 차이와 해당 학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측정 한상숙 등(2008)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평균 3.3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이 졸업 시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후 임상실무경험과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유사 경향은 김소선 등(2004)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전문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 및 믿음이 내면화되는 과정으로 정의되는 전문직 사회화는 전문직관과 유사개념으로 4학년 간호학생의 전문직 사회화 점수는 신규간호사나 경력간호사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간호사가 되어서는 신규간호사일 때는 낮았다가 이후 실무경험과 함께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종교에 따라 간호전문직관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선행연구들에서 종교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서 차이를 보인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특정 종교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대상자에 포함된 학교 중에 특정 종교와 관련된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학교별로 종교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점수에서 차이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중다회귀분석에서 종교는 예측변수로서 추가적으로 간호전문직관 변량의 0.7%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특정 종교가 대상자들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는 평균 3.2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강현옥(2009)의 연구에서 2.9점, 서원희(2007)의 연구에서 2.64점, 이순희 등(2004)의 연구에서 2.7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점수가 낮은 두 선행연구(서원희, 2007; 이순희 등, 2004)에서 연구대상자는 모두 3년제 대학교의 3학년이었고 본 연구와 강현옥(2009)의 연구는 4년제 대학의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학제간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제에 따른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차이와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학생실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최근에는 병원에 입원한 대상자가 간호학생의 직접적 간호 처치를 받는 것을 꺼려하고, 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학생들이 간호제공에 한계가 있고 더 엄격해져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학생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이성은, 2001) 이러한 현실적 불만족이 학생들의 임상실습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자기효능감은 평균 3.60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4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유문숙, 유일영, 홍성경 및 손연정(2006)의 연구에서 3.21점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3년제 2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2009)의 연구에서 3.70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유문숙 등(2006)은 이와 같이 2학년 학생보다 4학년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을 신규간호사로써 복잡한 임상환경에서 겪게 될 여러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으로 추론하였으며, 간호학생이 미래에 대한 우려를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교에

서는 4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에 대비한 준비교육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변수이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는 높아지고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김영희(2009)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는 .379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이었다(최진, 박현주, 2009).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감 사이에 상관관계는 유의하였으나 상관계수가 .196으로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간호전문직관의 유의한 예측 변수에 자기효능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 대상자들의 학년과 학제가 다른 것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김영희(2009)의 연구 대상자는 3년제 학제의 2학년 학생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모두 마친 4학년 학제의 4학년 학생이었다. 따라서 학년 변화에 따라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 및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이러한 변수들이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이미지는 3.71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이순희 등(2004)의 연구에서 3.40점, 이순희와 김정아(2006)의 연구에서 3.35점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다. 허부영역은 전문적 이미지 3.92점으로 나타났으며 두 선행연구 결과도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나 일치하였다. 간호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전문적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은 그에 상응하게 변화되지는 않아, 간호의 전문화와 함께 독자적 자율성 보장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3.8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정미현과 신민아(2006)의 연구에서 3.79점, 이동재(2004)의 연구에서 3.73점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며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허부영역에서는 인식만족이 4.18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동재(2004)의 연구와 정미현과 신민아(2006)의 연구에서도 인식만족이 가장 높게 나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및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임상실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사이미지 및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는데,

권영미와 윤은자(2007)의 연구에서도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일치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유사개념인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강현옥, 2009; 서원희, 2007)에서도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과 간호사이미지에 관한 연구(이정애, 2004)에서도 간호사이미지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효능감과 다른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는 유의하였지만 상관관계의 크기가 다른 변수들과 비교하여 매우 낮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종교(천주교), 임상실습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에서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영향이 높은 변수는 간호사이미지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아울러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교과과정 내에 체계적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4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건전한 전문직관 형성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나 졸업과 동시에 간호전문직관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권영미, 윤은자, 2007), 이후 임상실무를 통해 전문직관이 더 성숙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I시 소재 2개 대학과 S시 소재 1개 4년제 간호학과 4학년 학생으로 임상실습을 모두 마친 학생 207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주요 의의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전문직 태도나 전문직 자아개념과 같이 간호전문직관의 하위 개념에 속하는 변수들에 대해 주로 연구한 반면 본 연구는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이 4년 동안의 간호교육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주요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 조사한 것이다. 졸업을 앞둔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영향 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을 토대로 하여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에 이러한 변수들의 강화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며, 미래의 간호사로써 직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전문직임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일부 변수들에서 3년제, 4년제 학제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에서 3년제 4년제 간의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학제에 따른 차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교육을 통해 일차적으로 형성된다고 하였으므로 1학년부터 졸업학년까지의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종적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학년별로 교과과정과 학사 프로그램 등에 반영할 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을 확인한 선행연구가 부족함으로 반복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기여하는 영향요인에 대한 지지 자료를 더욱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자기효능감, 간호전문직관 및 임상실습만족도 사이에 상관관계는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강현옥 (2009).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권영미, 윤은자 (2007).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 사회성,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간호 행정학회지*, 13(3), 285-292.

김소선, 김조자, 이원희, 오의금, 문성미, 김영진 (2004). 간호학생과 간호사의 전문직 사회화. *간호 행정학회지*, 10(3), 317-323.

김영란(1995). 간호전문대학생의 재학중 간호전문직관의 변화에 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31(5), 169-181.

김영희 (2009).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6(3), 307-315.

배정미 (1999). 간호학과 학생의 대학과정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8(2), 256-267.

서원희 (2007).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신은주 (2008).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실습만족도

및 기본간호수기술과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5(3), 380-386.

양일심 (1998). *간호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양진주 (2000).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가치관과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 276-286.

오원옥 (2002).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2(5), 684-693.

유문숙, 유일영, 홍성경, 손연정(2006).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간호수기능력과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3(3), 343-350.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 (2005).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5(6), 1091-1100.

이경혜 (1985). 간호대학생들의 가치관과 가치관 변화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5(3), 21-30.

이동재 (2004).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성적체감, 성고정관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성은 (2001).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경험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모성간호학 임상실습 중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7(2), 333-348.

이순희, 김숙영, 김정아 (2004). 간호학생의 간호이미지와 임상실습만족도. *간호행정학회지*, 10(2), 219-231.

이순희, 김정아 (2006). 간호과 학생들과 비간호과 학생들의 이미지 결정 요인. *간호행정학회지*, 12(1), 52-62.

이은현, 정영혜, 김진선, 송라운, 황구윤(2002). *보건통계분석*. 서울: 군자출판사.

이정애 (2004). 간호대학생의 전문적 자아개념과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간호행정학회지*, 10(3), 325-334.

정미현, 신민아 (2006).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170-177.

조결자, 강현숙 (1984). 일부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14(2), 63-74.

최진, 박현주(2009). 학업을 병행하는 임상간호사의 전문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 *간호행정학회지*, 15(1), 37-44.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상숙, 김명희, 윤은경 (2008).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73-79.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황성자 (2006).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 205-213.
- Adams, D., & Miller, B. K. (2001). Professionalism in nursing behavior of nurse practitioner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7*(4), 203-210.
- Bang, K. S., Kang, J. H., Jun, M. H., Kim, H. S., Son, H. M., Yu, S. J., Kwon, M. K., & Kim, J. S. (2011). Professional values in Korea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31*, 72-75.
- Kelly, L. Y. (1980). Nursing image: A question of identity. *Nursing Outlook, 28*(3), 202.
- Kotler, P., & Clarke, R. (1987). *Marketing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Schank, M. J., & Weis, D. (2001). Service and education share responsibility for nurse, value development. *Journal of Nursing Staff Development, 17*(5), 226-233.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Ham, YounSuk¹⁾ · Kim, Hwasoon²⁾ · Cho, InSook³⁾ · Lim, JiYoung⁴⁾

1) Instructor, Ansan University

2) Proffe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3)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4)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influencing factors of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Method:** A convenience sample of 207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two universities in I city and one university in S city. The subject for this survey were senior students who finished all clinical practicum to be done before graduation. **Results:** The mean scores of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ere 3.43 and 3.28 individually. The mean of self-efficacy and image of nurses were 3.60 and 3.71 individually. Mean of major satisfaction score was 3.88.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elf-efficacy, image of nurses and major satisfaction. The most strong factor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was the image of nurses and accounted 52.0 percentage of the variance. Sixty point one percentage of the variance was explained by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religion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Conclusion:** To make students have more positive nursing professionalism, strategies enhancing the positive nurse image, clinical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need to be developed during school years.

Key words : nursing student, nursing, professional role, professional ethics, professionalism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wasoon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253 Younghyun-dong, Nam-gu, Incheon, 402-751

Tel: 82-32-860-8208, Fax: 082-32-860-8774, E-mail: khs0618@inha.ac.kr